

# 크누트 하임 박사, 속담, 1강, 서론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잠언에 관한 이번 강의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크누트 하임 박사입니다. 저는 영국 감리교회의 안수 목사인 장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름답고 화창한 미국 콜로라도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여기 덴버에 있는 덴버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는 잠언의 이 시리즈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책은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성경에서 자주 읽히지 않는 책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25년 넘게 이 책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1990년대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잠언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수년 동안 감리교회에서 목회자와 안수 목사로 일했으며, 그 후 영국에 있는 두 개의 신학교에서 처음에는 미들랜드 버밍엄에 있는 퀸즈 재단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트리니티 칼리지 브리스톨.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잠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책 제목인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첫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서 31장에 포함된 915개의 구절이 정말 모두 솔로몬의 글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실제로 잠언 모음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음집 중 상당수가 실제로 지명된 개인이나 학자 그룹, 고대 학자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책에 있는 다양한 컬렉션의 부제목에 누구의 이름과 제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 대한 일종의 짧은 서문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지금 내 발언의 어느 정도는 구약 연구 협회의 위키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경 서적에 대한 훌륭한하고 유용한 자료입니다.

구약 연구 협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나는 이 출판물에 포함된 잠언의 위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댓글에 쓴 내용을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는 우리를 지적이고 영적인 여행으로 초대하며, 이것은 실제로 정신과 영의 모험입니다. 이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지적으로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이 책의 초대는 특히 지혜의 여신이 주최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대연회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 잔치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약속합니다. 책 전체와 그에 담긴 많은 강의는 행복한 관계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특징으로 하는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책 마지막 부분에는 놀랍도록 유능하고, 현명하고, 강력하고, 성공한 여성에 대한 성대한 축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섹스, 돈, 정치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상세하고 도발적인 탐구를 포함하여 수많은 실용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목표는 항상 실용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는 반면, 책의 모든 부분은 자신감 있고 부자연스러운 종교적 현실주의가 특징이며 종종 매우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책의 여러 부분의 저자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7개의 서로 다른 하위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9장까지의 다양한 연설이 산재해 있는 솔로몬 강의 모음집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련의 강의와 연설 중 하나의 섹션입니다. 둘째, 때로는 세분되거나 때로는 학자에 의해 두 부분, 즉 10장부터 15장까지와 16장부터 22장까지 세분되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자들의 명언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2장 17절에서 시작하여 2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네 번째 하위 모음집은 24장의 지혜로운 말씀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23~34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위 모음은 솔로몬의 잠언을 추가로 모은 것이지만, 25장 1절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들은 신하들, 궁정 관리들, 행정관들, 통치하에 있는 왕실에서 수집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로부터 거의 300년 후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그다음 6부는 야게의 아들 야굴이라는 개인의 말과 묵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으며, 성경 외의 고고학 자료나 발견물, 낙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도 언급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소위 르무엘 왕의 말씀이 나옵니다. 르무엘 왕이 직접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짧은 강의입니다.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왕 어머니. 그리고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 추가된 이상화되고 매우 흥미로운 여성의 확장된 시적 인물 묘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강의 시리즈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서론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이름이 있거나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쓴 많은 다른 부분, 즉 일곱 개의 큰 부분이 모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중 일부는 실제로 익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름도 없고 이들 개인의 특정 기능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첫 구절은 처음에 책 전체를 다윗의 아들이자 많은 잠언, 노래, 과학 논문을 작곡하고 수집한 것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에게 할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심할 바 없이 이 책 전체가 비록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책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수집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책의 뒷부분에 있는 자막은 이름이 있거나 이름이 없는 다른 저자 및 편집자에게 여러 섹션을 명시적으로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22장 17절, 24장 23절, 30장 1절, 31장 1절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25장 1절도 언급했습니다. , 이는 해당 장에서 수집된 잠언을 솔로몬의 것으로 지정하지만, 그 잠언은 수백 년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편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NYCOT 시리즈의 Bruce Waltke가 쓴 잠언에 대한 최근의 주요 논평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별히 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학자가 어떻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최종 편집자가 5~7권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25~31장이고, 솔로몬의 1~4권에는 1~24장을 추가했습니다. 1.1절을 솔로몬의 마지막 작품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은 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의 주요 저자이자 이 선집의 가장 저명한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실제 저자인 브루스 월트키(Bruce Waltke)는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아마도 페르시아 시대만큼 늦게 살았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빌론으로 유배된 후인 기원전 540년경에서 아마도 늦어도 기원전 332년까지입니다. 이것이 브루스 월트키의 인용문의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책의 많은 부분과 그것이 현재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당히 일관된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저자를 할당하는 것을 개념화하는 일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 형태는 실제로 솔로몬 왕이 살았던 솔로몬보다 훨씬 늦게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있는 두 개의 마지막 모음집의 명명된 저자, 즉 야케의 아들 아굴과 르무엘 왕은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르무엘 왕이 비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기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찾을 수 있는 일부 자료에 대한 비이스라엘인 저자의 책 강의에서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일부 또는 모든 주변 국가와 종교적으로 매우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성서의 일부인 이 진정한 국제적 책의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자 특징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지혜 문헌의 사회·종교적 배경은 국제적이었고, 이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문학의 수용과 현대적 관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확실히 이 책 전체의 저자는 아니지만, 이 책에 분명히 할당된 부분의 저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솔로몬의 저작물에 대한 현대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여기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에만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고려에 기초하여, 확실히 20세기 이후, 그리고 심지어 그보다 조금 더 이전부터 최근 학자들의 대다수는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의 저자가 실제로 솔로몬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고려 중인 속담 중 상당 수는 소위 민간 속담, 말 그대로 궁정이나 왕이 아닌 일반 민중, 일반 사람들에게서 유래한 속담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속담의 정의는 그것이 잠언 모음집에 포함될 당시 문화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익명의 속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잠언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실제로 그 잠언을 책에 넣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편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속담은 현명한 왕이라는 그의 명성을 바탕으로 그에게 할당되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말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솔로몬의 잠언으로 확인된 많은 잠언들이 솔로몬이 그 잠언의 실제 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가 3,000에 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배정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하다. 솔로몬이 말한 잠언은 히브리어로 열왕기상 4장 32절이나 열왕기상 5장 12절에 반영된 전통에 따라 또는 솔로몬 시대에서 유래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책의 다른 부분에 대한 날짜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월터스(Bruce Walters)의 논평에서 인용한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일찍, 즉 불과 몇 분 전에 보여주었듯이 이 책의 가장 초기 부분은 기원전 10세기 900년대 솔로몬의 시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책은 300년대만큼 늦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대 60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료의 연대측정에 있어서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모음집, 즉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이 책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 375개의 구절이 솔로몬 시대부터 유래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솔로몬이 수집하고 만들고 대중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은 현대 학자들은 책의 어떤 부분도 그렇게 오래되었을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음집, 즉 잠언 22.17-24.22과 다른 짧은 부분인 잠언 22.17-24.23-34은 알려지지 않은 현명한 사람들의 그룹에 할당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왕궁에 기반을 둔 특정 유형의 지식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5~16장에서 읽을 수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정치적 조언자였던 유명한 아히토벨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2.17-24.22의 많은 부분과 유명한 현대 이집트 지혜 텍스트, 즉 소위 Amenemope 지침 사이에는 놀라운 양의 중복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약간의 허깨비는 사람인 Amenemope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세계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집트에서 온 이 유명한 현자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자란 독일에서는 당시 아메네모페(Amenemope)로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것을 고르세요. 하지만 발음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잠언 22-24장에 수십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또는 거의 문자 그대로 번역할 때 거의 정확히 동일한 단어로, 물론 이집트 본문에서 대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메네모페의 본문이 심지어 솔로몬 시대보다 약간 더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 생각에는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본문 사이에는 너무 많은 중복이 있어서 잠언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이집트 잠언에 대한 창조적 의존이 이제 현대 학문에서 거의 보편적이고 아주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이 구절과 23-34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작은 지혜의 말씀 모음집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구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나 유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위 모음집의 순서에서 그들의 초기 위치는 700년대 말

히스기야 통치 이전에 이 책에 추가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음집의 순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25장은 그 기간 이후.

그러면 다섯 번째 모음집인 잠언 25-29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 책이 편찬된 기간, 즉 적어도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인 대략 기원전 728년부터 698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편집본에 포함된 자료는 900년대 솔로몬 시대의 것으로 선언되며, 그 통치 날짜는 대략 기원전 970년에서 931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 이후의 자료 중 적어도 일부도 우연히 여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두 모음집은 거의 확실하게 히스기야 통치보다 후기 시기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책 끝부분의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 말기, 즉 기원전 332년 직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포로 이전 기간, 즉 통치 이후에 일찍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직후.

그런데 포로 기간은 기원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바빌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인구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주변 인구의 대부분이 귀환할 때까지입니다. 기원전 535년. 이제 왔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애써 피했지만 이제 실제로 책의 첫 번째 하위 컬렉션인 1-8장부터 9-18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연대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책에서의 위치와 1-1장의 제목, 그리고 열왕기상 4장이라는 외부 증거는 이 책이 솔로몬 자신에게서 유래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자들의 대다수는 포로기 이후 기간에 전체 부분의 연대를 확실히 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 즉 지난 세기 현재까지 후기 연대에 대한 주장은 주로 형식비판적이거나 형식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책의 다른 자료는 짧고 간결하며 한 줄이나 두 줄로 된 명언이나 아주 작은 명언 모음입니다. 1-9장의 자료는 종종 전체 장에 대한 긴 연설이고 장 길이의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긴 자료는 장르의 발전, 즉 이런 종류의 공개 교육의 형태로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종류의 논쟁은 확실히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포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연대 측정이 늦어진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일한 주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료의 연대를 더 일찍 연대로 정한 학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바로 그 연대에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약간의 추정이 있는 것 외에는 늦은 연대 측정에 대한 다른 강력한 주장이 제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자신의 손에 속한 사람들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아마도 성경과 그 내용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연구하는 자료에 대해 특히나 일관적으로 비판적이기를 원하는 신앙 기반이 덜한 학자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역사적 데이터에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성경의 책들 중, 이것이 대화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내 동료 중 한 명인 캐서린 델 교수의 작업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 출판물에서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가 반드시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 읽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 이후에 있을 것이며, 그녀는 솔로몬 자신의 시대를 포함하여 그것이 포로 이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다양한 좋은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그걸 거기에 놔둘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책의 여러 부분의 상대적인 날짜를 알아 두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한 일반적인 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제 잠언의 내용과 그 문맥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책 전체와 각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조언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의 윤리는 순전히 건전한 것입니까? 즉, 이 책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까, 아니면 좀 더 타 지향적인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둘째, 왜 이 책은 구약 신학의 큰 주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출애굽, 족장들의 선출, 왕들의 역사, 성경의 여러 책에 나타난 계시, 오래된 성경의 책들, 선지자들의 사역 등. 현명한 저자들은 토라, 모세오경, 오경, 선지자들을 쓴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 집단에 속합니까? 책에는 게으름이 가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뜻입니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합니까? 그러나 이 개념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부터 불의를 당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다른 말들(예를 들어 18장 23절)이나 독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라고 조언하는 구절들과 조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14장 21절과 31절 또는 19장 70절에서.

이 일반적인 서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일반적인 개요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은 흥미롭고 매우 흥미롭게도 이 책은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야심이 있고, 지적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책에서는 그들을 히브리어로 페티(peti)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하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프티 (peti)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지적 호기심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젊은이를 뜻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아직 미성숙하고 당시에 가능한 지적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독자들, 즉 그 시대의 젊은 지식인들을 위해 바로 그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풍요로운 삶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공동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잠언에 관한 이 강의 시리즈에 계속 참여하면서 당신이 채택해야 할 좋은 종류의 개인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종교적, 영적 개방성, 당신이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삶의 가치관과 습관을 개발하고 형성하도록 돕는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 특정 세계의 모든 의미에서. 지적으로 겸손한 자세, 즉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취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모험인 지적 여행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이 책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Dr. Knut Heim입니다. 첫 번째 세션, 소개입니다.